

러·이란·터키, 시리아 내전 종식 논의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주요 거점인 이дли브에 러시아와 시리아군의 최후 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내전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3개국인 러시아, 이란, 터키 정상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만나 내전 종전을 논의했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테헤란에 도착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예방했다. 3개국 모두 시리아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과 러시아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 이견을 나타냈다.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의 편을 들어 이дли브에서 '테러조직'을 몰아내는 군사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터키는 민간인에 벌어질 인도적 위기를 이유로 무력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시리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을 근거로 시리아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시리아 담당 특별고문인 짐 제프리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дли브주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고문의 주장은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최후 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추가적 화학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발언이란 분석이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дли브의 일부 주민은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우려해 종이컵에 숨과 솜을 채운 뒤 투명비닐을 붙여 만든 방독면을 아이들에게 씌우고 있다.

멕시코 경찰국장 등, 마약갱단 공격으로 사망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시 경찰국장을 포함한 4명의 경찰이 무장괴한들의 매복 공격에 사망했다.

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에두아르도 플라솔라 가르시아 과달라하라시 경찰국장이 출근하려고 자신의 집을 나선 뒤 인근 도로에서 AR-15, AK-47 소총 등을 소지한 괴한들의 매복 공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국장을 경호하던 경찰 3명도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총격에 살아남은 경찰이 반격에 나서 일부 괴한이 부상했으나, 괴한들은 타고 온 2대의 차량을 이용해 유유히 도주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최근 지역 마약범죄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한 데 대한 보복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리스코주는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이 활개를 치는 지역이다.

지난해 멕시코의 살인율이 3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만1,174명이 살해됐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살해당한 수치로 2011년 인구 10만명당 24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멕시코의 폭력 범죄는 멕시코 정부가 군대·경찰을 동원해 주요 마약범죄조직 소탕에 나선 직후인 2008년 급증하기 시작했다. 폭력 범죄는 2012~2014년 다소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에 폭력 범죄가 빈번한 것은 거대 마약 카르텔이 소규모 조직으로 분열되고 갱단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이 다양해진 상황과 관련이 크다. 멕시코 범죄조직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서로 미국에 팔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조직 간 싸움도 잦다.

미국·인도 '동맹급' 군사협력 합의

'중국 견제'라는 이슈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인도가 양국 군사협력 수준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첫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를 갖고 '통신 상호 운용성 및 보안 협정' (COMCASA)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은 서로 보유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인도로서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양국은 내년에 인도 동쪽 해안에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도 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처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군사·경제적 팽창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

략으로 관측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인도는 파키스탄, 동남아, 인도양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양측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인도의 이탄산 원유 수입과 러시아산 방공망 도입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조치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탄산 원유의 경우 11월 4일까지 수입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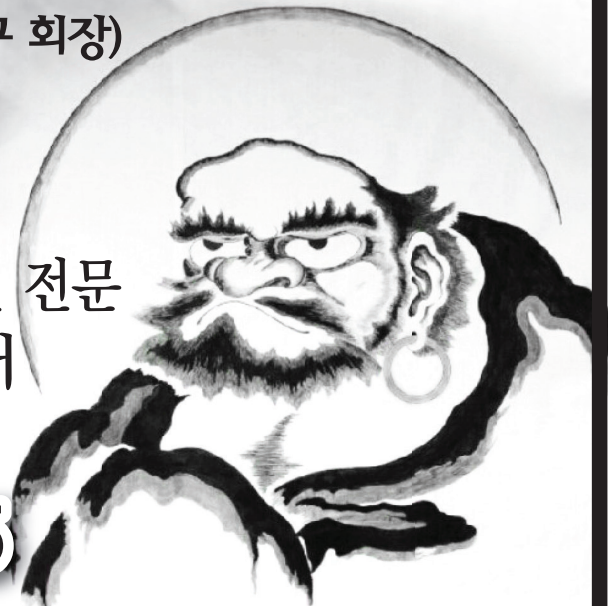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